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4. 6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YWCA 운동성

특집

돌봄의 위기, 그 가치와 의미를 찾다

이달의 현장

중부·서부지역 회원대회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북한어린이돕기

신익주 출신 어머니의 유산이 큰 사랑으로



유난히 비가 자주 옵니다.
 덕분에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나 풀 잎사귀에 대롱대롱 매달린 빗방울들은
 진주 구슬로 예쁘게 장식해놓은 보석과 같습니다.
 풀잎 끝에 매달린 작은 빗방울들을 가까이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슬보다 더 작은 빗방울 안에 하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산과 구름 그리고 주위에 가득 피어난 꽃들이
 그 작디작은 구슬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빗방울 안에서 하늘과 산과 꽃이 방긋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지닌 사람은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가득한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을 비롯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YWCA 운동성 | 원영희
- 05 월레아침기도회 노래하라! 생명과 성령의 바람 | 이훈삼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6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특집** 돌봄의 위기, 그 가치와 의미를 찾다
- 08 기획 ① 돌봄노동의 성서적 이해 | 최만자
- 10 기획 ② 돌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 | 엄영란
- 12 기획 ③ 돌봄노동과 YWCA
YWCA 돌봄 회원수기 | 김영옥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 편집실
- 칼럼**
- 16 탈핵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김익중
- 18 여성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의미 | 김은경
- 20 인권 가장 잔인한 고문 성폭력, 가정폭력 | 김정린
- 22 청년 연애와 결혼, 현실의 벽을 마주하다 | 청주Y
- 24 이달의 현장 ① 중부·서부지역 회원대회 | 편집실
- 26 이달의 현장 ②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 주철환
- 28 이달의 현장 ③ 2014년 YWCA 어린이집 원장 생태교육 워크숍 | 신희정
- 29 이달의 묵상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 | 이천진
- 32 북한어린이돕기 신의주 출신 어머니의 유산이 큰 사랑으로 | 조영미
- 33 연합회 소식
- 35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2014 YWCA 지역별 회원대회는 탈핵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부지역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의 회복을 꿈꿉니다.

제50권 제5호 통권 511호 2014년 6월 19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총보출관리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인쇄 중무기획인쇄(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YWCA 운동성

글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 이사)




“YWCA는 이렇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한 인도YWCA 사무총장 라일라 빠샤(Leila Passah)의 일성이었다. “운동성이 살아있는 한국YWCA가 자랑스럽고 그 지속성이 또한 부럽다.” 명동거리를 함께 오가며 탈핵 소책자를 나누어주던 빠샤 사무총장은 연거푸 부럽다고 했다.

라일라는 작년 인도 버스에서 여대생을 집단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 직후 세계YWCA와 인터뷰를 통해 VAW(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추방)운동의 절실함을 “Enough is enough!”(그만 제발 그만!)라고 절규한 주인공이다. 전 세계가 아직도 놀라고 있던 중에, 얼마 후 인도에서는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었다. 그러나 세계와 인도는 어느새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다. 마치 우리가 어느새 세월호 침몰과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 속에서 밀어내려는 것처럼. 그러는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는 300여 명의 여학생들이 집단 납치되었는데, 이는 2010년 내전으로 사망한 수백만 명 중 상당수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사망했던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이렇게 보면 비극, 특히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으로 인한 비극은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보인다.

그래서 6월이면 떠오르는 두 날이 더욱 가슴 아프다. 현충일과 6.25. 슬픈 두 날 모두 전쟁과 관련된 날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알링톤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가 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묘비명 앞에 서면 전사한 곳이 ‘한국’ 이라고 적힌 곳이 허다하다. 그 앞에 서면, 저들의 희생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전쟁의 정치적 배경, 열강의 속셈, 그 욕심과 탐욕의 허망함과 비논리성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쟁에서든 결과적으로 여성과 아이들, 소녀들이 언제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UNSCR) 1325는 그래서 결의됐고, 각 나라는 이를 준행할 의무가 있다.

“변화를 이끄는 여성”(Women Leading Change)들의 운동체인 세계YWCA는 현 2011~2015 회기 중 운동 중점 목표를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Women Creating a Safe World)으로 정해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운동을 지속 전개해 왔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더욱 강력한 YWCA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세계 이사회는 2015년 10월 11일부터 16일에 걸쳐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28차 세계대회 주제를 “2035를 향하여—담대한 지도자,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력”(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Toward 2035)으로 정했다. 세계YWCA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장인 ‘세계여성대회’에 각 지역 국가 YWCA들이 적극 참여하길 권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권리는 물론 여성의 안전도 여성 스스로 지키는 시대,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끝없이 외치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 한국YWCA는 앞장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화요일 정오, 명동 거리는 비가 오나 맑으나 반드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열린다.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세계 여성을 위한 더 안전한 세상 건설을 목표로, 탈핵운동이 세계여성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담대히’ 기도해야겠다. 

노래하라! 생명과 성령의 바람

글 | 이훈삼 (성남주민교회 담임목사)

사도행전 2장 1절~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제자들이 겪어야했던 그 허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죽음의 바람, 절망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이 초대교회의 공기였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허탈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유폐시키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청껏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변신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말씀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있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덮쳐 오더니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놓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져 나갔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삶과 역사의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고,

인생과 역사의 변혁이 가능했다.

2014~15년 YWCA 주제가 ‘생명의 바람 -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다. YWCA는 늘 세련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여성 운동단체임을 잘 드러내는 주제다. 시의성, 수사학적 표현, 주제 의식, 여성의 주체의식이 이 짧은 선언 속에 모두 스며있다. 이 시대 기독교 여성이 선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죽음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며,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왜곡된 남성성이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시대 분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 인식이 정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이 시대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존재론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성의 특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세월호 사고, 그리고 위험한 고리 1호기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반(反) 생명의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한다. 첫째, 생명 중심의 정책 바람이 불게 해야 한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돈, 이익, 권력, 명예 어떤 것도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품고 있는 원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개인의 실천에 앞장서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 원전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전기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절전하는 생활이다. 이웃을 위해서는 손이 커야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한 사람이 생명 일꾼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YWCA가 매주 화요일마다 행하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정말로 소중한 생명의 노래다! 오늘 한국YWCA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거룩한 응답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실 것이다. 노래하라 생명의 바람, 노래하라 성령의 바람! 

6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YWCA는 YWCA의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고자 모인 회원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즉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가 보전되도록 일하는 운동체입니다. 한국YWCA의 회원들은 젊은 여성의 정신으로 연령, 국적, 직업,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변화의 과제를 찾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역별 회원대회는 흩어져 활동하던 회원들이 5개의 지역단위로 모여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지역이 소속된 북부지역을 시작으로,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회원대회가 지난주까지 이어졌고, 경기지역의 회원들은 7월 1일에 회원대회를 갖습니다. 지역별로 500여 명, 총 2,500명의 회원대표가 모이는 회원대회입니다. 2014년 지역별 회원대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시작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역할, 구체적으로 탈핵,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선포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세월호보다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문제와 핵무기의 위험 앞에서, 후손들에게 위험을 물려줄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매주 화요일, 명동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충주와 순천에 이어 부천과 경기지역위원회, 6월 마지막주에는 서울Y가 캠페인을 주관합니다. 지역에서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낭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잘한다!” 하시는 격려에 힘을 얻습니다.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정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리에서 반복되는 캠페인인데도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는 한 시간 동안 24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산모 돌봄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회원께서 캠페인에 참여하신 후 “너무도 당연한 이 문제를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 하시면서, “Y의 회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신 말씀에 더 깊은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수명이 다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 폐쇄 서명 운동과 매주 화요일 11시 50분, 명동에서 열리는 탈핵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좋은TV 프로그램’을 찾아알리는 노력을 20년 가까이 이어온 결과로, YWCA가 주는 상은 방송국 PD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되었습니다. 한국Y가 이어온 역사에서 보듯, YWCA는 긴 호흡으로, 세상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나누고 지켜왔습니다. ‘좋은 것들을 계속 지키는 Y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돌봄정의운동으로 돌봄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한국YWCA가 사돌봄회원들은 당일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돌봄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에서, 아직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회원대회에 모인 회원들도, 불의날 캠페인에 모인 회원들도 가슴 아픈 현실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과 살림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Y회원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없는 세상, 상처와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Special
특집

돌봄의 위기, 그 가치와 의미를 찾다

- 기획 ① _ 돌봄노동의 성서적 이해 | 최만자
- 기획 ② _ 돌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 | 엄영란
- 기획 ③ _ 돌봄노동과 YWCA

YWCA 돌봄 회원수기 | 김영옥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 편집실



하나님은 돌봄의 영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

글 | 최만자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신학자)

5월 30일 제1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개최됐다. '2014 YWCA 돌봄정의포럼'은 올해 말까지 총 6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돌봄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현장과 만난다.

돌봄윤리 요청의 현실

'돌봄의 윤리' 혹은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가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돌봄의 필요성이 절실히 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주지하는 대로 고령 인구의 급증, 가족 해체와 저출산, 돌봄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는 동안 건설에만 집중하고 거대한 돌봄 영역을 방치했으며, 핵가족화와 불가피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돌봄을 담당했던 가족·가정이 해체되면서 사회는 사실상 파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금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된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가구 내 여성에 의존하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보다 사회 자체가 돌봄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사회 기반을 닦아야 하며, 동시에 상호 소통과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전면적인 사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사랑과 책임과 창의성으로 상호 돌봄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성을 육성해야 하고 그런 교육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보살피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런 인간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심적인 교육목표가 될 것이다. 가족관계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보살핌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사회 정책을

분석하는 여성주의 시각에서 사랑과 생명의 보살핌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돌봄은 우리가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고쳐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인간) 유적 활동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아, 우리의 환경이 포함되며, 돌봄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생명-지속적인 그물로 짜여 지기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피셔와 트론토)

창조 질서로서의 돌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창세기 1장 1~2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물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기적을 낳으려는 새처럼 만물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퍼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며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31장) 이 구절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살폈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질서 안에 있고, 모든 피조물은 동시에 상호 보살피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태초의 '돌봄'은 인간존재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돌봄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은 돌봄의 영이고 우주 만물이 돌봄에 의해 생명을 얻고 지속시키는 것이 창조질서이다.

하나님의 속성: 돌봄의 하나님, 모성적 하나님

성서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특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성서구절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이라 하고 43장 1절에서도 '너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전형적 모습이다(민수기 11장).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성서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상호 돌봄에 근거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돌봄 윤리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맥락은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는 계명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물었고,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핵심을 답할 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답으로 들려 준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직접적인 성서의 답이 여기에 있다.

이 성서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시대 이타주의적 실천 봉사의 근거를 제시하여 이웃 돌봄의 기본 가치가 되었

다. 고통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행동 곧 예수의 교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길이 된다고도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델은 돌봄이 단순히 일시적·반사적·동정적인 돌봄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피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엄영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돌봄의 실천적 차원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실천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 사람 곧 돌봄의 주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고 배척당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돌보는 자가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된 영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의식', '돌봄의 인간성'을 가져 '돌봄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사회의 권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보는 자와 정책을 만드는 자 간의 갈등(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돌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답론을 전개하고 그 실천적 과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성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은 기존의 도덕 기준에서 남성적 '정의의 윤리'가 가진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윤리로 '돌봄의 윤리'를 제시했고 이것이 여성주의적 윤리론들이 크게 확대되는 데 이바지했다. YWCA 내에서 이 차원의 논의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돌봄윤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반응을 필자가 오래 전부터 제시하여 '연민, 살림, 지혜'의 신학전개를 시도해 왔고 이 또한 더 깊은 신학적 담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Y는 언제나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창조적 사고를 하면서 그동안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살펴보면 Y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돌봄의 과제를 면밀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돌봄과 보살핌이 인간의 생명 살린다

글 | **엄영란**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돌봄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당연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타인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아기들과 치매노인들의 어이없는 죽음이나,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환자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간병자살’, ‘간병살인’이란 극단적인 현상으로 돌봄이 그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본고에서 다루려는 돌봄은 이러한 본능적이고 모성애적인 돌봄을 바탕으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돌봄이다. 의도적인 돌봄의 역사는 초기기독교 시대 이타주의적 실천봉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가, 10:27)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가, 10:29~37)가 기본 가치가 되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었고, 이 행위를 통해 개인들은 ‘영원한 삶’을 얻으려 하였다. 그리스도 교회는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간호나 돌봄을 중요시하였다. 이타적인 돌봄은 수혜자가 더이상 돌봄을 필요로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다. 환자간호는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돌보고 부모가 아프면 주

로 딸들이 돌봄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돌봄이 일종의 성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 구조,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돌봄을 제공할 필요성을 불렀다.

침상 옆에 상주할 가족이 마땅치 않다 보니 ‘간병인’이라는 명칭으로 보호자를 대신하는 직종까지 생겨났다. 가족이 입원할 경우 간병인 채용은 이제 필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0년 급성병원 간병실태조사 결과, 간병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환자가 61%로 가족 중 간병할 사람이 없는 환자는 64%에 달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해져 예전에는 병원이나 탁아소 정도였지만 이제는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정 밖에서 받게 되는 돌봄 서비스가 다양하다. 산후조리원, 영유아의 탁아와 교육을 겸비한 기관들, 고령의 노인들을 위한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요양기관들, 다양한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그것이다.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

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노인, 환자들의 문제와 요구, 취약성에 적합하게 충분한 돌봄이어야 한다. 즉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더불어 고령화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의 증폭으로 돌봄 서비스는 점차 상업화된 서비스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상업화된 돌봄 서비스는 돌봄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이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로 전락하고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만 남아’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돌봄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있지만, 돌봄 시설이 지금처럼 영리기관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주장이다.

가족이 아닌 타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보수가 돌봄을 위한 선결 요건이 된다. 돌봄이란 미덕은 내적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미덕으로 칭송해주는 것만으로는 돌봄이 알맞게 공급되지 못한다. 즉, 경제적인 보상 없이 이타심만을 장려하는 것은 어렵다.

제대로 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돈이 든다. 그러나 돌봄을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돌봄 서비스의 소비자가 타인의 손길 없이는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노인, 또는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르다. 수혜자가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서 제공자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처지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영유아의 부모나 노인의 자녀들, 즉 위탁자·보호자들도 외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

돌봄수혜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돌봄노동자에게 노동권 보장을

돌봄 수혜자들이 존중을 받으며 충분한 돌봄을 받으려면 업무환경을 확보하려는 돌봄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이란 환자에 대한 하나의 ‘의무’로만 요구되어왔을 뿐 돌봄의 방법을 결정할 ‘권리’에 측면에 관심을 두기가 힘든데 이는 결국 돌봄제공자들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현상은 돌봄수혜자들의 인권침해현상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상과 같이 돌봄의 특성과 돌봄 수혜자의 특성에 기초한 이상의 돌봄 윤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환자(대상자)의 관점에서 충분



빈센트 반 고흐
‘선한 사마리아인’, 1890

하게 느껴질 만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돌봄노동자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아서 돌봄 수혜자가 인간다운 존중을 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돌봄이 상업화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적인 돌봄이 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돌봄 서비스의 주요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다음,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제공자 차원과 더불어 환자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돌봄 전문직 차원에서 돌봄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에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봄은 더 이상 가족들이 무상으로 무한정 제공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존중받으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려면,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 이제 제공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돌봄을 기초로 하는 돌봄 시스템을 개발하고 돌봄 가치에 기초한 국민건강보험체계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자. 돌봄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인간적인 의무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다. 



YWCA 돌봄과 함께 “봉사의 마음으로 Y의 운동 전합니다”

글 | 김영옥 (안산Y 돌봄 회원)

6남매의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한 직장에서 운명의 짝을 만나 3년을 비밀리에 사내연애를 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예쁜 두 딸을 낳고 남편은 사업을 하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며 저라도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기에 사회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는데 친구의 소개로 YWCA의 돌봄미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하는 일이 가사일인데 뭐가 힘들겠나 싶어 무작정 교육을 신청하고 YWCA를 찾아 갔는데 첫 시간 담당 간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납니다.

“YWCA 도우미는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벌려는 분은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돈이 아쉬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다른 일을 할 자신은 더욱 없었기에 교육을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일을 간 곳은 신혼부부 집이었고 일당 2만원과 함께 마침 아이 백일이라며 백일떡을 받아왔습니다. 그 날 받은 일당으로 무릎이 아파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백일떡을 받았는데 아이 내복이라도 사줘야 할 것 같아 내복도 사고 저녁 반찬 거리도 샀는데 돈이 조금 남아 참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창 시절에도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고 짧은 직장경력 외에는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 매번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은 가사일을 간 집에 손님이 갑자기 와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들고 무작정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숨어 들어간 작은 방에서 손님이 갈 때까지 닦을 것도 없는데 닦고 또 닦으며 울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탁을 잘못해서 옷을 버린 일도 다반사고 물건을 깨트린 적도 많고 매번 새로운 가전제품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2년 가까이 YWCA 돌봄미로 일하면서 오랜 시간 쌓인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눈물도 마를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와 위로해 준 구인회원분도 계셨고 전화와 문자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회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못 잡고 수 개월을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를 기다려준 회원들까지 말입니다. 다시 일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차츰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 교육 때 간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YWCA의 돌봄서비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Y의 운동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두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Y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ILO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즉각 비준하라!

글 | 편집실

가사노동자들이 6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30만 가사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국YWCA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주최한 캠페인 현장을 찾았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지난 2011년 6월 16일 제 100회 국제노동기구 ILO총회에서 전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채택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30만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의 전문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가 몇 년에 걸친 토론 끝에 2011년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하였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칠레 등 4개 국가에서는 올해 비준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몇 차례 연구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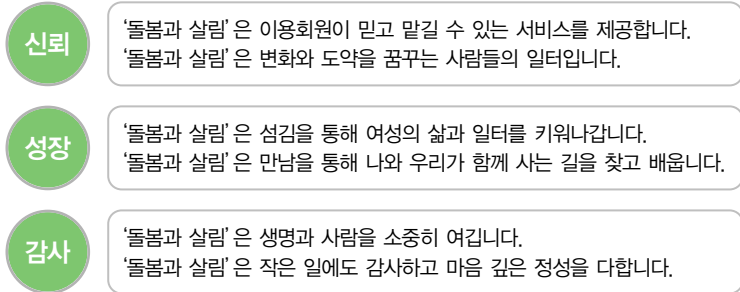
에 ▲ILO가사노동자협약 채택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정부는 책임지고 가사노동자, 이용자, 시민노동단체들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에 관한 논의 시작 ▲가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우선 시행, 가사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비와 생활비 보장 ▲고용과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공적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소와 같은 공공의 비영리 취업지원기관 확대 지원을 요구했다.

연합회 돌봄과 살림 조은선 팀장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으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이 적절한 노동권과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정관리사로 활동한 지 20여 년이 되었다는 서울Y 돌봄과 살림 최금옥 회원은 “경제적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가사노동을 하게 되었다. 가사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매월 보수 교육, 직종별 전문교육을 받으며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가사노동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할 때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 YWCA의 ‘봄나들이’ 노래에 맞추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우리는 전문직업인” 우선 퍼포먼스를 펼쳤다. 

돌봄은 '생명 살림' 입니다

Column
컬럼



살림도우미

• 4시간(반일) / 8시간(종일) 서비스

4시간(기본 서비스)

- 1) 청소 : 방, 거실, 욕실, 현관, 주방(냉장고 청소제외), 베란다(다용도실 정리 제외)
- 2) 세탁 : 세탁기 1-2회, 손빨래(가벼운 옷 3벌 이내), 빨래 널기, 삶기, 개키기, 다림질 2벌 이내

산모돌봄미

• 산모와 신생아 관련 일을 우선시

산모 서비스영역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및 마사지, 모유수유돕기, 산후체조
- 좌욕,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서비스영역

- 신생아 돌보기, 목욕 및 제대관리, 베이비 마사지
- 젖병세척, 관리, 소독
- 신생아 건강관리, 기본 예방접종관리, 감염예방관리
- 신생아 옷 빨래, 소독

아기돌봄미

• 집안일은 아이방과 거실에 한해서만 정리

- 1) 안전한 먹거리 기저귀 떼기 : 젖병세척, 소독관리, 배변훈련과 배변돕기
- 2) 몸 튼튼 키 쑥쑥 : 놀이터 나들이, 산책하기, 실내놀이
- 3) 마음 튼튼 지혜 쑥쑥 : 동화책 읽어주기, 노래 함께 부르기, 노래 불러주기, 좋은 음악 듣기
- 4) 깨끗한 우리집 건강한 우리아기 : 아기방 청소하기, 감염예방관리, 예방접종관리, 응급처치, 병원동행

건강돌봄미

• 병원 간병, 가정 간병을 도움
• 쾌속한 환자의 건강을 돕기 위한 건강보조 활동 지원

- 1) 영양관리 배뇨관리 : 식사돕기, 화장실 사용돕기, 복약돕기
- 2) 위생관리 이동도움 : 세면, 목욕돕기, 욕창감염예방, 휠체어돕기, 보행 및 이동돕기
- 3) 의사소통 여가지원 : 말벗하기, 여가 생활돕기(TV, 음악감상, 독서 등)
- 4)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영양관리, 피부 및 침상 청결관리, 외출돕기

- **탈핵**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김익중
- **여성** _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의미 | 김은경
- **인권** _ 가장 잔인한 고문 성폭력, 가정폭력 | 김정린
- **청년** _ 연애와 결혼, 현실의 벽을 마주하다 | 청주Y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글 |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 5 편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재처리
- 제10편 _ 핵발전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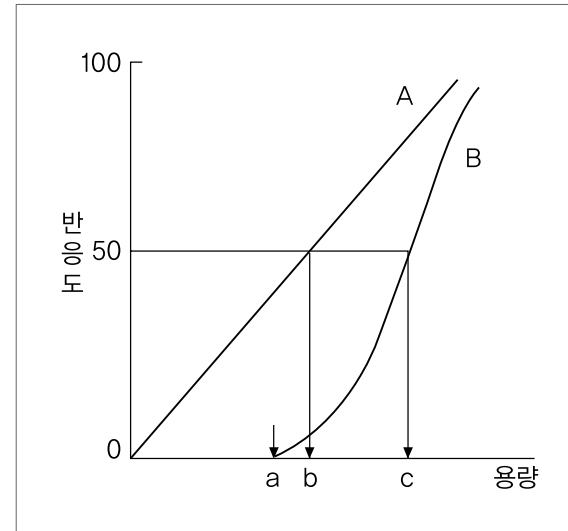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으나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꾸준히 해왔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정부의 기준치가 ‘안전기준치’ 인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기준치가 과연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기준치일까?

필자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에 관하여 정부와 논쟁을 하던 도중이었다. 경주 방폐장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준치 이하로 누출되니 안전하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에서였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는 이 말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핵사고의 영향을 우려한 국민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겠지만, 과연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 것일까?

이 기준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두 가지로 정해져있다. 하나는 1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라고 정해진 음식에서의 방사능 기준치이고, 다른 하나는 1mSv/y(연간 1인당 1밀리시버트)라고 정해진 기준치이다. 음식에서의 기준치는 2013년 9월 이전에는 370Bq/kg였다.

필자가 이러한 기준치들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는 국가들마다 이 기준치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100베크렐, 유럽은 370베크렐, 미국은 1,200베크렐로 나라마다 다른데,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폭량 기준치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1mSv/y이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20배 올려버렸다. 핵사고를 당하면 인체가 갑자기 바뀌어서 더 많은 방사능에 저항이 생기는 것도 아닐 터였다. 여기서 시작된 필자의 기준치의 안전성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은 결국 교과서와 의학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의학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자. 방사능에 피폭되면 두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하나는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등의 질병인데, 이들은 그림에서 B와 같이 역치값 이상의 방사능에 피폭되어야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둘째는 암과 유전병인데 이들은 그림에서 A와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발병한다. 즉, 피폭량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의학교과서에는 피폭량과 암발생이 비례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어디를 기준으로 잡건 간에 방사능 피폭량이 제로가 아닌 이상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봐야한다.



방사능 피폭량과 질병과의 관계. A는 암과 유전병의 발병양상이고 B는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등의 발병 양상이다.

이는 기준치가 의학적 안전기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폭량과 암발생은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외국의 의학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의 의학교과서가 이렇게 기술된 근거는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발행한 보고서와 국제방사능방호협회가 발행한 보고서 등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인 100Bq/kg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은 방사능 기준치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충분히 낮은 것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상 최악의 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핵사고 이후 2년 6개월동안 한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들의 방사능 측정치를 살펴보면 총 131회의 오염 수산물 중 단 7회만 10Bq/kg 이상이였다.

또한 이 10회의 고농도 오염 수산물 중 기준치(100Bq/kg)를 초과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현재의 기준치는 따라서 “위반이 불가능 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검사종류	mSv / 검사당
가슴 X-선 사진(정면)	0.02
가슴 X-선 사진(측면)	0.04
허리(요추) X-선 사진(정면)	1.0
유방촬영	0.27
바륨을 사용한 위 사진	2.6
바륨을 사용한 대장사진	7.2
머리 CT	2.0
가슴 CT	8.0
배 CT	10
골반 CT	10
심장혈관조영술	6.61
심장혈관중재술	7.42
갑상선 스캔	3.61
뼈 스캔	5.27
뇌 SPECT	8.45
심장 SPECT	20.4

우리나라 병원방사선 검사 선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5)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발언했던 “바람직한 한국의 방사능 기준치”는 4Bq/kg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기준치보다 더 많이 오염된 식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기준치 설정의 원칙에 맞게 정하려면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4Bq/kg 정도가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방사능에는 안전기준치가 없으며, 방사능의 위험성은 그 피폭량에 비례해서 증가함이 의학적으로 결론지어졌는데, 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또한 세계 각국의 방사능 기준치가 위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설정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활 속 탈핵 실천하기

병원방사능과 피폭의 관계

- ① 상당히 많은 양에 피폭되고 있다.
- ②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있다.
- ③ 이익이 클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 ④ 한국은 세계적으로 병원방사능 피폭량이 많은 나라이다.
- ⑤ CT 촬영하는 환자의 30% 정도가 두 번 촬영 한다.

〈결론〉 우리의 노력으로 피폭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 OECD 34개국 중 최하위

글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5월 26일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빨간가방을 들고있다.

2010년 OECD 통계 기준, 대한민국의 남녀임금격차 (Gender Pay Gap)는 39%에 이른다. OECD 평균인 16%의 두 배를 넘으며, 34개국 중 최하위로, 지난 10년 간, 단 1%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단위 %, 출처 OECD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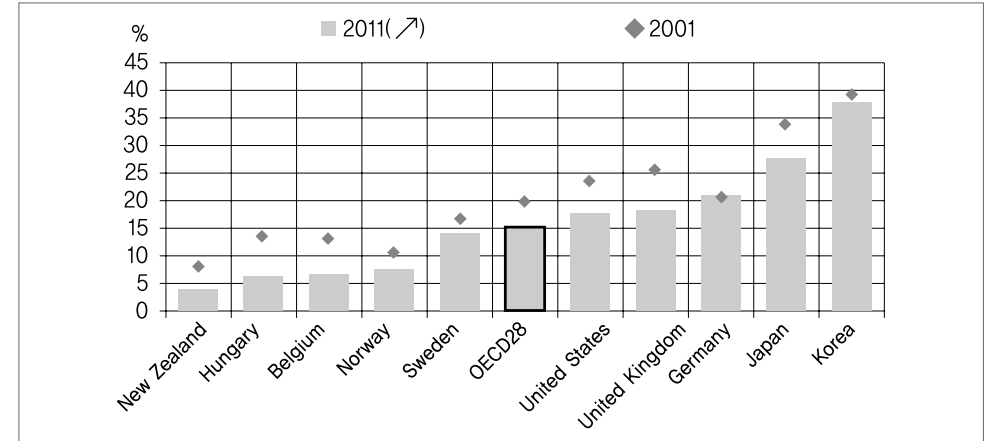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임금 차이	40.4	39.1	39.8	38.8	38.3	38.5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금 차이	37.8	38.8	38.9	39	37.5	37.4

통계는 남성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남성임금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의 임금이 61%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간 근로일수 260일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우 1년을 일하고 추가로 10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사회 남녀간 임금격차의 심각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의 수준에 있다. '동일임금의 날' (Equal Pay Day)은 이와 같은 몰이해와 무관심을 넘어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차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제도 및 정책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남

녀 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동일임금의 날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나라별로 상이한 현황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대중운동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차별의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는 물론, 가계 적자를 상징하는 빨간 옷, 빨간 가방 등을 공유하며 상호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유럽 동일임금의 날' 을 만들어 임금차이의 변화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동일임금의 날을 개최한 벨기에에는 2014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10여년의 과정을 거치며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한 벨기에 '동일임금의 날' 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 수집과 관련 연구를 요구하여 변화의 추이를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1996년 전미동등임금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Pay Equity)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고, 휴일 및 국가적 기념일과 겹치지 않는 날을 고려하여 4월 중 화요일로 정해서 실시한다. 특별히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남성들의 일주일치 임금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을 해야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BPW 세계연맹 주최로 유엔여성



2001년과 2011년 전일제고용자 평균임금 기준 남녀임금차이. (2001년과 2011의 간격이 넓을수록 남녀임금 차이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냄)

지위위원회에서 '국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이 열렸다. 본 행사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유럽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3년, 19대 국회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성아동분야와 관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제6조의4(동일임금의 날)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일임금의 날을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한다.” 라고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인 월요일로 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차이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각 사회가 처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인 원인들에 의해 임금차별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수평적 차별(직종 간 문제), 수직적 차별(조직 내 차별), 시간제 근로, 가족 관계, 직업 훈련, 경력 단절, 나아가 기타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 중의 52%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진행된 사례들을 통해 '동일임금의 날' 의 성과를 기능할 수 있는데, '동일임금의 날' 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임금차이의 감소는 물론 언론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적 임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것이다. 분명 동일임금의 날은 남녀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성평등과 동일 임금에 관한 국가 전략 수립, 남녀 임금 격차 보고서(Gender Equality Reports) 작성, 기업의 임금격차해소에 대한 성평등 계획 수립 및 감사, 특별법 및 단체협약, 임금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투명화, 동일임금의 날, 성인 지적 직무평가와 분류체계 등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지침 제공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임금차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와 관계 당사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대중 여론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목표는 분명하다. 인식제고와 참여를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치고, 미처 알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임금차이를 언론과 기업 내 주요 이슈로 만들어, 미디어의 주요 의제,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잔인한 고문 성폭력, 가정폭력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미국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 평화의 소녀상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들라고 하면, 단연코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가 으뜸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진국/개발도상국, 남반구/북반구, 자본주의/사회주의, 흑인/백인/황인, 도시지역/산간지역 할 것 없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근무했던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스위스나 인근 유럽국가에서도, 도시를 누비는 전차 전면이 가정폭력 금지 캠페인 포스터로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세계여성대회에 모인 전 세계 여성 대표들은, 그 동안 자기 나라에서만 겪고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했던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가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모든 여성, 소녀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임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연대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고문방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문이라고 하면 흔히 범죄자 또는 범죄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고문과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문방지조약이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어

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고문방지조약에서 말하는 ‘고문’ 이 무엇인지 살펴보지요. 협약 제1조는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밖에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1)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2)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3)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또는 강요하기 위해, 또는 (4) 그 어떤 차별의 근거를 이유로 하여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고문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소 - 즉 행위자(공무원, 공무수행자 및 그에 준하는 사람), 고문의 목적(1~4), 극심한 고통 수반 - 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 두 가지 요소만을 충족시키면 준고문에 달하는 비인도적처우(ill-treatment)로 간주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의 행위자가 공무집행자가 아니라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문’ 의 틀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고문방지위원회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협약이 정의하는 비인도적 처우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점차 고문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문으로 생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폭력 문제에는 무

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정신대 문제’ 를 국가기관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주도된 여성에 대한 고문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의 도식에 맞춰 본다면, 정신대 문제는 국가기관이 (행위주체) 조선 여성이라는 차별적 근거로 (목적)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극심한 고통 수반) 행위로, 행위주체, 목적, 극심한 고통수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인할 수 없는 고문행위지요. 2013년 5월 제50차 회기에서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정신대 문제’ 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언급하고, 정부의 공식사과 및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신대 문제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인권 침해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르완다, 콩고, 수단,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모든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을 전쟁의 도구로써 사용하는 인권침해, 반인도주의적 전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폭력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는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남성과 결혼한 딸을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고발하여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을 접하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몇 일 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쉬주에서는 소녀들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두 어린 소녀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 마을 주민 전체가 그 끔찍한 사건을 목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마녀사냥으로 매주 여성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 맞는 아내, 자녀들의 애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성폭력은 참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 강간이나 기타 성적인 폭력, 물리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폭력, 혼인강간, 앞서 파키스탄의 경우와 같은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강요된 자살, 여성할례, 강제 낙태, 강제결혼 및 조혼 등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나, 그 내용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차별적 이유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고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벌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 자체도 끔찍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과 관계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키스탄의 경우, 바로 고등법원 앞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를 막는 사람들이나 공권력이 전혀 없었고, 인도의 사건에서도 두 소녀들이 실종됐음을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개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권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사로 치부하여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수사에도 소극적이고,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고, 설사 기소가 된다 해도 가해자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게 되고, 가정폭력, 성폭력은 점점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고, 만에 하나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가 행해졌을 때, 국가가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는 모든 가능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반논평 제19호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문방지 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인강간에 대한 인식 저조 및 이를 형법상 범죄로의 미규정,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낮은 신고 및 처벌,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애와 결혼, 현실의 벽을 마주하다

이번 청년 칼럼에서는 청주YWCA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실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뿐 아니라 연애와 결혼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결혼 들여다보기 : 어떤 결혼을 꿈꿔야 하는 걸까요?



글 | 김남규
(청주Y 대학Y 두드림동아리 회장)

‘인류지대사’란 결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일이란 뜻이다. 이렇게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39세 미혼 남녀들 중 33%만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결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는 응답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책임이 결여된 이성간의 만남

최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이전과 비교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남녀평등사상, 개인주의적 가치관, 가족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국제결혼의 활성화와 이혼율 증가의 인구학적 요인까지 동시다발적인 요인들로 인한 결과이다. 이타성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팽배한 가운데, 대중매체는 요즘

♥ 연애 에세이 ‘무엇의 공간’

글 | 신보미 (청주Y 대학Y)




캠퍼스에는 많은 커플들이 있다. 학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더운 날에도 수많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다. 털익은 사과처럼 풋풋한 웃음을 짓는 이들이 있다. 아무 표정 없이 묵묵히 커플 운동화를 신고 걷는 이들이 있다. 나는 여중, 여고를 다녔다. 남자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연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반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성교제를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떡볶이를 먹고 영화를 봤다는 소소한 이야기에 저마다의 상상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 연애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연애라는 것은 내가 가진 환상과 사뭇 달랐다. 짧은 만남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절절했던 순간이 있다. 긴 시간을 함께 하지만 형식적인 시간도 있었다. 한날은 기뻐다. 또 한날은 슬펐다. 어느 날은 혼란스럽기도 했다. 친구들도 그랬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무엇을 추억했다.

무엇의 존재를 각자의 공간에 넣어 놓고 가끔씩 꺼내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 연애사’라 부르며 그 공간을 모두 털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결코 그 공간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한순간이든 몇 년이든 쉽게 지나간 것을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요즘 젊은 이들이 쉽게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 쉽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여자연애사, 그 남자연애사의 한 공간이다. 털어버리고 지날 수 없는 공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무엇의 감정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그린다. 지나는 커플마다 각자의 연애사가 있다. 혼자 어딘가를 보는 남자와 그 앞을 지나는 여자도 각자의 연애사가 있을 것이다. 내 눈을 지나는 이들 모두는 만남이라는 것 안에서 연애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길을 만들며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 길은 쪽 이어서는 재미난 저마다의 무엇이다.

젊은이들에게 허영심의 영역이자 끝도 없는 과시와 자아도취의 광장도 되어 준다. 결혼뿐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나잇’으로 정신적 사랑이 아닌 육체적 사랑을 통해 성에 대한 욕구만을 탐닉하고 충족시키며, 그걸 자랑인 듯 SNS에 올려 남들과 공유한다. 성관계는 ‘사랑’의 전제가 아닌 ‘책임’의 전제 하에 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조차 성립하지 못하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이 있어도 결혼이 어렵다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비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32.2세, 여자는 29.6세가 평균 결혼 연령이라고 한다. 10년 전에 비하면 남자는 2.1세, 여자가 2.3세 상승한 것이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온 2년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대학 졸업 후 7년 뒤에 결혼한다는 뜻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3포세대’에서 스펙 쌓기와 일자리 전쟁에 치여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세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미혼 직장인 중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사랑하고 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연인이 있다면 결혼식을 못하고 밥 숟가락 하나에 단칸방 월세에 살아도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문화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중시해 과도한 결혼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이지 이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어떤 결혼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 고민만 늘어간다. 

2014 회원대회 현장을 찾아서 Ⅱ

글 | 편집실

서부지역 회원대회, 상처, 그리고 회복!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광양Y 광주Y 남원Y 목포Y 서귀포Y 순천Y 여수Y 익산Y 전주Y 제주Y 군산직할지부

서부지역 11개 회원Y는 6월 11일 수요일 전주바울센터에 모였다. 이영희 서부지역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세월호의 아픈 마음을 함께 하고, 탈핵이 왜 필요하며 탈핵에 이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결의하는 자리로 서부지역 회원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세월호 추모 음악회를 통해 서부지역 회원들은 잊혀져 가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전 주제 강연자로 나선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위험성과 원자력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의 심각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탈핵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Y회원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경우 '석유보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극심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생활속 실천으로 전력 소비를 줄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할 것을 당부했다. 전 세계의 흐름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줄여 한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오후 회원 한마당에서는 캠페인송 부르기, 풍트, 에너지절약 사례발표, 서부지역 로고송 부르기, 결의문 낭독을 통해 탈핵을 향한 회원 결의를 다짐했다. 가장 많은 환호를 이끌어낸 순천Y는 회원증모 캠페인송으로 대중가요 '무조건'을 개사해 울동과 함께 선보였다.

“회원증모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 회원증모~ 순천와이지역 회~원증모는 행복한 삶 살기 위함이야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꺼야 Y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Y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 급! 사랑이야 순천만을 지나 봉화산을 지나
낙안읍성 지나서라도 회원증모할 땐 달려갈꺼야 무조건 달려갈꺼야”

중부지역 회원대회,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린다.

논산Y 대전Y 서천Y 세종Y 제천Y 천안Y 청주Y 충주Y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 시대, 생명을 살리는 영성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중부지역 8개 회원Y가 5월 29일 대전 대덕교회에 모였다. 한국사회에 십자가를 통해 갈라진 것들을 잇고,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패, 불평등을 정의와 생명으로 변화시키며, 억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한 중부지역 회원대회. 이중삼 담임목사(대덕교회)의 '뜻의 안목으로' 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한 나오미를 이스라엘 열국의 어머니로 우뚝 세우신 것처럼 Y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날 중부지역 회원대회는 6.4지방 선거 D-6 일에 임박하여 열려 '탈핵' 과 '여성' 부문에 대해 8개 회원Y 1만 7천 회원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공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하는 장이 되었다.

개회식에서 오순숙 YWCA 중부지역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받고 치유되며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부분은 바로 탈핵 운동임을 밝히며 ‘핵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갈 것임을 밝혔다. 오전 주제 강연에서 이천진 목사(궁정교회)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란 주제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사상과 안전불감증, 여러 모양의 구조적 악에 대해 시민으로서 함께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엄청난 핵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수 있다는 경각심과 지속가능한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폐쇄 운동은 물론 핵없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오후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생명을’이란 탈핵 노래를 울동과 함께 배웠으며, 청주Y 동극단에서 준비한 탈핵퍼포먼스 ‘내얼굴을 돌려줘’를 통해 핵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생명세상을 우리가 지켜내야겠다는 회원의 다짐을 굳건히 했다. 이어진 2014 회원대회 결의문 낭독은 ‘핵없는 세상’과 ‘여성·아동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한 중부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냈다.

또한, 어울림이 출연한 좋은 세상을 위한 콘서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중부지역 회원들은 생명세상을 그리며 생명과 평화에 민감한 감수성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고 살릴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 이후, 핵없는 생명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인 ‘좋다’의 고백이 어울림의 공연을 통해 중부지역 회원Y 모두에게 마음과 생각에 큰 울림이 된 소중한 콘서트였다.

YWCA가 뽑은 좋은 TV 교육과 미래에 주목하다

글 | 주철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좋은 TV 심사위원)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5월 23일 금요일 연합회 강당에서 수상작 제작진, 심사위원단, YWCA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21일 까지 생명, 여성, 청년·청소년, 평화를 주제로 다룬 TV 프로그램 총 74편을 추천받아 대상, 특별상, 각 부문상 등 총 6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대상
SBS 스페셜 3부작
〈부모 VS 학부모〉



• 생명부문
전주MBC
〈육식의 반란2-분노사슬〉



• 여성부문
제주MBC 경력단절여성취업기
〈그녀가 돌아왔다〉



• 청년·청소년부문
KBS 파노라마 2부작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



• 평화부문
KBS 시사기획 창
〈갈 곳 없는 '핵폐기물' 해법 없나?〉



• 특별상
EBS 다큐프라임 6부작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이 열여덟 해째를 맞았습니다. 소년의 풋풋함에서 청년의 기백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한국 방송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협회, 혹은 기성언론사가 주는 상들과는 사뭇 구별되는 안목과 행보를 보여 왔기에 그 의미와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올해도 Y가 지닌 건강한 의식과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잘 표현된 작품을 엄선하여 제작진의 의식과 전문성을 격려합니다.

올해 Y는 교육과 미래라는 주제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대상으로 뽑힌 SBS 스페셜 3부작 〈부모 vs 학부모〉(기획: 박두선, 연출: 박진홍, 작가: 신진주)는 기존의 교육관련 다큐멘터리가 학교의 변화에 집중한 것과 달리, 현실 사교육 소비의 일차 의사결정권자인 부모의 선택을 통해 한계에 달한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신한 기획이 돋보였습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협력을 통해서만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을 비롯해 회원YWCA, 취재기자 및 유관단체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는 사실을 해외와 국내 취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대안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생명부문 수상작인 전주MBC의 〈육식의 반란2-분노사슬〉(기획: 송인호, 연출·글: 유룡, 촬영·편집: 홍창용, 작가: 손우기)은 국토환경용량의 2배 이상의 분뇨가 매년 토양에 축적돼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된 한국의 현실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분노 문제를 간과한 채 산업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축산이 얼마나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막대한 세금을 축내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되돌아오는지를 집중 조명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성부문 수상작인 제주MBC의 경력단절여성취업기 〈그녀가 돌아왔다〉(기획·연출: 김지은, 작가: 현유미, 촬영: 김보성)는 제주지역 내 경력단절여성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싱가포르의 재취업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인생2막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부산의 초중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이란 수업방법을 도입해 2학기 내 실행하며 그 과정을 기록한 KBS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기획: 한창록, 연출: 정찬필, 작가: 민혜진)는 위기에 처한 한국 교육의 획기적 탈출구를 제시한 프로그램으로서 청년·청소년부문 수상

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화부문 수상작인 KBS 시사기획 창 〈갈 곳 없는 '핵폐기물' 해법 없나?〉(기획: 감일상, 연출: 김 석, 촬영: 김진환, 편집: 성동혁)는 YWCA의 2014-2015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탈핵 운동 이슈를 과감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대안적 모색을 진지하게 다룬다 큐멘터리입니다.

아울러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6부작(기획·연출: 정성욱, 연출: 이지현, 채라다, 조연출: 박정민, 임태준, 작가: 임정화, 정 명)은 전국 44명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수업은 지금 정도(正道)를 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직접 기획, 촬영하는 과정을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기성세대의 시선이 아닌 대학생들의 ‘진짜대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의 이름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뽑다’라는 동사와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잡초와 독초는 뽑아서 버리고 약초와 감초는 심어서 기르듯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 모내기, 김매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경쟁시대의 가뭄과 홍수를 꿰뚫어 이겨낸 농부에게 주는 상이 바로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상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주는 추수감사의 선물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YWCA

생태 감수성 살리는 교육방법 모색

글 | 신희정 (제주Y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원장)



5월 28일 생태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28일 연합회에서 YWCA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워크숍이 있다고 하여 다녀왔다. 교육도 받고 오랜만에 보고싶었던 원장님들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일정을 비워두고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 원장님들이 참여하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전국의 YWCA어린이집은 몇 년 전부터 YWCA 중점운동을 통해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태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각 어린이집에서의 생태교육 실천사례(숲체험활동, 친환경먹거리 이용)등을 공유하며 전국의 Y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생태교육의 기초를 세우기며 노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번 워크숍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게 생각하고 있던 생태교육 관점을 좀 더 발전되고 확장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워크숍 첫 시간에 있었던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의 강의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환경오염은 다른 곳이나 아닌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며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가장 놀랐던 것은 유해한 PVC가 어린이집에서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가방 및 필통, 장난감 등 우리

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던 물품들에서 무척 많이 발견되었다. 나름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유아들은 환경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된 유아환경교육의 이해와 실제에서는 생태교육이 영유아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몇몇 프로그램에 국한된 생태교육을 하며 형식만 갖춰진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진정한 생태교육은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삶의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유아시기의 생태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생태적 관점에 민감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YWCA는 생명의 바람, 생명을 살리는 여성을 외치며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Y의 정신을 갖고 YWCA어린이집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실천할 것이다. YWCA어린이집을 통해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전국 26개 YWCA어린이집에서는 숲체험 활동, 숲 반 운영, 텃밭가꾸기, 생태마을 만들기 등의 생태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읽기 (Lectio)

- 창세기 11장 1절-9절
-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

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묵상 (Meditatio)

1. 처음에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1절)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다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2절)
3. 사람들은 돌과 흙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3절)
4. 사람들은 왜 도시와 탑을 세웠습니까? (4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5절)
6.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6절)
7.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7절)
8. 사람들이 언제 도시 짓는 일을 중단하였습니까? (8절)
9.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기도 (Oratio) / 묵상 나눔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 고대 수메르 시대에는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



바벨탑(The Tower of Babel),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1563)

다고 믿었습니다. 동쪽에서 이동해 온,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돌과 흙 대신에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문명의 시작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이러한 인간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서로 질투하는 두 신들 사이의 투쟁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서는 인간들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깨뜨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를 깨뜨린 것은 하늘에 닿은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성읍과 탑은 거대한 벽돌로 된 다층탑인 '지글랏'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도시와 탑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름을 날리고, 둘째, 흠여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과 같아지려고 벌인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도 흠여지지 않기 위

해 탑을 쌓은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 오셔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교만해진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한 언어, 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흠여셨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중단하였습니다.

-Q: 하나님은 핵에너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다?

세계화

사회학자 박형준은 '국제화론, 철학의 부재와 논쟁의 결여'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글로벌화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경쟁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장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이 말한 것처럼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온평공동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공동의 조국인 지구를 살리고 문명화라는 계기로 사고하는 것이다. 전자가 신보수주의라면 후자는 신진보주의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의 국제화론에는 전자만이 도드라질 뿐 후자의 목소리는 가냘프기 짝이 없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환경, 기후 변화 등 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입니다. 핵에너지를 만들어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은 또 다른 히틀러일 뿐입니다.

-Q: 핵에너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에너지입니까?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처하려는 에너지입니까?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장운재 교수는 '탈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청년운동가의 역할' 에서 핵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온 죄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 9:6, 욥 25:2, 딤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 (시 49:15)이다. 그래서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술공학체제(Technocracy)와 대량살생의 군사무기 및 무한성장을 통하여 지정학적 패권과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융합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권력체제이다. 이런 체제와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모순어법이기 때문이다."

장운재 교수는 또 2011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원자력과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핵은 인간이 피조물임을 거부한 교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핵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며 강대국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시작이자 도착점이다. 인간은 이 욕망을 위해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댔다. 우리의 죄는 자연의 근본원리에 폭력을 가하고,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한 것,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고 피조물임을 거부한 것이다."

거짓 신

칼 바르트(Karl Barth)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선언을 거부하여 본 대학 교수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오류, 자기소외, 자기중심성, 자기폐쇄성만이 아니라, 광기와 영웅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탈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Pseudogottheit)으로 만든다."

관상 (Contemplatio) / 실천 (Praxis)

1)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2) 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합니까?

3)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신의를 출신 어머님의 유산이 큰 사랑으로




가족의 유산을 전해 주신 윤화자 선생님.

반가운 전화 한 통이 올랐다. 오래 전 YWCA의 실무활동가로 일하셨던 윤화자 선생님이 연합회를 방문하신다는 전화였다. 6월 11일 연합회 사무실의 문을 열고 환하게 들어오시며 오랜만에 만난 YWCA 식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신 선생님은 더위의 땀을 식힐 새도 없이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1917년 평안북도 신의주 용천에서 태어난 어머니 김옥진 여사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배경 덕분에 늘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 기독교 교육을 중요시한 가족은 어머니를 평양의 송의학교로 유학을 보내셨고, 이후에 대학은 당시 이화여전으로 옮겨 피아노를 전공하셨다. 늘 근검절약과 나눔을 중요시 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따님이신 윤화자 선생님 또한 어머니의 실천적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몸에 젖어들었다고 하셨다.

윤화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일하는 멋진 여성으로, 삶에서는 근검절약을 실천하시는 멘토셨던 어머니를 늘 존경해 왔다. 그렇게 평생을 삶의 본보기로 사셨던 어머니를 작년 2013년 12월 14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신 윤화자 선생님은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형제들과 나누며 어머니의 고향이자, 아직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셨다고 하신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셨던 북한 땅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유산을 기탁할 곳을 찾고 계셨다. 특히, 어머니 생전에 북에 두고 온 막내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내 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북한 어린이에 대한 마음이 따님이신 윤화자 선생님께도 깊이 남아있으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YWCA가 1997년도부터 전개하고 있는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고, 그리고 한걸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 YWCA를 방문해 주셨다. 가방에서 고이 꺼내주신 하얀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선생님은 나지막이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이 되어 북한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선뜻 어머니의 마음으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유산을 전달해 주신 것이었다. 전해 주신 1천만원은 가족의 유산을 북한어린이돕기에 전해준 첫 사례가 되었다.

YWCA의 북한어린이돕기 영상을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신 선생님은 늘 삶의 본보기가 되셨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렇듯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린 감사함을 나눔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모두에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대를 이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로 주신 그 정성이 앞으로 북한 어린이들과 통일을 위한 큰 생명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글 | 조영미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부장)

북한어린이돕기 후원명단

5월 (2014년 5월 1일 - 6월 2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2014. 5. 1.~ 5.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꺾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기중,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솔,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93명)	1,624,000
개인기부 (월계좌이체 기부, 기념 기부 등)	김미, 김은순(뉴욕), 최혜실, 방원철(성광교회), 이진용 위원, 무명 1인	442,800
협력 교회	정동제일교회, 반석교회, 여수한빛교회, 여수 중앙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10,423,033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여성교회, 대광초등학교 3학년1반일동	200,000
회원 YWCA, 부속시설	대전YWCA, 동해YWCA	278,400
저금통 기부	박미선	20,110
합계		12,988,343

연합회 소식

6월 월례기도회

6월 월례기도회가 6월 2일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훈삼(성남주교회) 담임목사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1~4)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삶과 역사의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고, 인생과 역사의 변혁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YWCA 불의날 탈핵 캠페인이 소중한 생명의 노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를 위해, 또한 남북간 나눔과 협력의 사회를 위해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 P.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방문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특별법 제정,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연합회를 5월 28일 방문했다. 연합회는 세월호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

1.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4.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5.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서명 : <http://sign.sewolho416.org/>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충주Y(제10차), 순천Y(제11차), 부천Y(제13차) 등 회원Y의 참여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제13차 불의날 캠페인에서는 6월 9일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1호기의 제어봉 낙하 사고로 원전이 멈추어 선 사고와, 30년의 수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7년 더 연장 가동중인 고리 1호기가 130여 건의 고장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를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까지 전국 회원Y 캠페인 부스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제1차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5월 23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대상은 SBS 스페셜 3부작 '부모 vs 학부모'가 차지했으며 생명, 여성, 청년·청소년, 평화 부문상과 특별상 총 6개 부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방송사 관계자 20명, 회원Y(서울, 제주, 전주) 12명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자세한 내용 P.26~)

2014 YWCA 돌봄정의포럼

5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열렸다. 총 6차로 진행될 '2014 YWCA 돌봄정의포럼'은 향후 회원YWCA와 공동주관으로 지역순회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2차 돌봄정의포럼은 서울Y와 공동주관으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6월 19일 서울Y 강당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 P.8~)

2015년 씽크머니, 다래교실 사업 확정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와 '다문화시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다래교실'의 2015년 사업 운영이 최종 확정되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금융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래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 청소년, 일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직업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학습, 직접 활용하게 된다. 본 사업들은 씨티재단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2014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준비모임 및 파견

2014년 7월 2일 도스뜨 자원활동가 10명이 인도 살렘 지역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 1회 준비모임을 통해 영어기초교육, IT교육, 여성 인권 및 성교육, 보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팀워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8월 말까지 인도의 마을에서 2개월간 인도 청년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활동할 예정이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제1차 운영위원회

6월 2일부터 1박 2일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2014년도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다.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공동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였고, 3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도우누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자체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부터 한국YWCA연합회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동 정

-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이사장 선임 (2014. 05. 27~2017. 05. 26) 강교자(연합회 중경회장)
- 후원회 신임이사 선출 (~2017. 06. 21) 김형 (서울Y 중경회장) / 전화성 (씨엔티테크(주) CEO)
- 연합회 신임 직원 박주연 간사(협력사업팀)
- 연합회 파견 복귀 안정희 부장

북부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2014 Y-틴 · Uni-Y 연합인준식



2014년 Y-틴 · Uni-Y 연합인준식이 5월 17일 서울Y 대강당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추모 영상 상영으로 엄숙하게 시작된 이번 인준식은 전병식 목사(배화여대 교목)의 은혜로운 말씀과 비전 특강 등으로 많은 회원에게 도전이 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Y 정책과 제 중 하나인 '탈핵' 운동의 첫 번째 활동으로, 13개 Y-틴 동아리가 참가한 '에너지절약 십계명 공모대회'를 진행하며 중점운동 주제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인준식에 참여한 300여 명의 회원은 사회의 아픔에 눈감지 않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YWCA | 이한나 간사
Y해피봉사단과 YWCA인천장애인AG대회봉사단 발대식



5월 13일 활동이 부자유한 독거노인가정, 장애인노인가정에 방문하여 청소년봉사를 전개하는 Y해피봉사단과 YWCA인천장애인AG 봉사단을 발족하여 따뜻한 여성성과 엄마의 마음으로 Y회원으로 회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개강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급여 1%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과 (주)송도에스이 카페 오아시아 2013년 운영수익금을 후원받아 실전 네일아티스트 양성과정과 바리스타 양성과정에 각 15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도입국 자녀 포함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 꿈 찾기 비전스쿨을 진행한다.

강릉YWCA | 박지윤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5월 29일 목요일 강릉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우리는 청소년 지킴 천사'라는 슬로건을 걸고 강릉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이 있었다. 고문희 강릉Y 회장의 YWCA 소개 및 운영개요에 이어 정인식 강릉경찰서장의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감시단증을 전달받는 단원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해환경 정보제공과 예방 캠페인 활동에 성심을 다하며 청소년들의 행복한 환경조성에 앞장 설 것을 선서했다.

동해YWCA | 김정은 간사
정책제안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5월 20일 본 회관 3층 강당에서 6.4 지방선거 후보 및 동해 Y 회원을 함께 초청하여 동해Y 지역의제를 제안했다. 본 제안회는 2014~15 6대 추진과제 중 2014년 중점운동 '탈핵' 을 비롯하여 '여성', '돌봄' 을 의제로 선택하여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YWCA가 바라는 생명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속초YWCA | 김희숙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5월 27일 이천진 목사(공정교회)를 모시고 '세상의 빛 YWCA'라는 주제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회원 증모 목표액은 6천만원이고 CMS회원 300명, 일반회원 100명, 평생회원 20명이다. 7월 8일에는 중간 평가회, 9월 16일에는 최종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원지도자들과 실무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 사회에 속초Y를 알리고, 생명사랑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원주YWCA | 신미선 간사

에코스쿨 발대식



5월 17일 원주Y 강당에서 '2014 에코스쿨 발대식' 을 가졌다. 박경숙(원주Y) 회장의 기도, 환경지킴이 선서와 앞으로 하게 될 외갓집 마을체험, 생태공원, 곤충박물관, 원주천 살리기 등 체험 일정 안내가 이뤄졌다.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춘천YWCA | 이복희 본부장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춘천Y 청소년문화의 집은 5월 31일에 청소년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주먹밥 만들기(삼각김밥)와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2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른 아침부터 삼각김밥 200여 개를 직접 만들어 명동 브라운관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상생의 직원워크숍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동안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에서 직원 56명이 상생의 직원워크숍을 진행했다. 첫째 날은 김혜정(서울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강의를 통해 고양Y의 탈핵운동 방향과 실천을 고민했다. 한완상 박사의 강의를 들으며 YWCA가 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평화적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도전받았다. 둘째날 북한산 둘레길과 벽화마을을 걸으며 생태감수성을 깨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 이종은 간사

여성그린교실 개강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환경 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생활속 실천방안 모색하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탈핵, 지구온난화, EM,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예정이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부천시장 후보 정책토론회 '부천의 내일을 묻다'



5월 28일 부천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천시장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선에 도전하는 김만수 현 부천시장과 이재진 시장후보와 함께 '부천의 내일을 묻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에 이어 지역현안에 대한 쟁점토론, 영역별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특별히 여성분야 정책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송록희 부천Y 사무총장은 '성주류화 정책 체계마련과 여성정책 전담부서 마련을 포함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던져 각 후보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장선거 전 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안산시장후보자 여성정책 토론회



안산여성희망연대와 안산의제21은 5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산시장 후보자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성주류화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등의 성평등분야 핵심정책과 제와 돌봄서비스 지원 등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여성정책을 공약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YWCA | 김희정 간사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안양 시장후보자 정책협약식



안양Y 및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4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풀뿌리 정책의제 네트워크로서 5월 29일 오후 2시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장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풀뿌리 정책의제를 7개 영역으로 정리해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각 후보자들은 풀뿌리 정책의제 네트워크와 경제, 교육, 환경, 노동권, 여성 및 참여예산제도분야에 대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YWCA의 중점운동이자 6.4 지방선거 의제로 제안된 탈핵의제와 성주류화의제가 각각 환경과 여성분야로 반영되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일 드림(DREAM)' 채용박람회

의정부Y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 드림(DREAM) 여성채용박람회' 를 5월 23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들을 깨우는 WAKE-UP, 여성들을 세워주는 STAND-UP, 여성들의 비전을 향한 FLYING-UP의 '3-UP 프로젝트' 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연계를 위한 행사였다. 현장면접과 알선희망 간접업체 참여로 구인구직 매칭이 이뤄졌다.



평택YWCA | 정혜근 간사

올바른 선택을 위한 6.4 지방선거 캠페인



5월 2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6.4 지방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권자와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에 앞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자신과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능력, 자질을 평가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평가를 실시한 후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다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하남YWCA | 김낙주 사무총장

EM환경교육과 탈핵운동



하남Y 회원부에서는 5월 20일 신장중학교 1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EM활성액 만들기 시연과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에너지절약과 탈핵운동에 대하여 강의했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성인지 정책 모니터요원 양성과정 - 기본 및 심화 교육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 정책 모니터요원 양성과정 교육을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 변화와 패러다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대전Y회원 및 시민 20명이 참여하여, 7월부터 지역 사회 성인지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5월 20일 제천중학교와 제천동중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주먹밥을 아침에 나누어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쌀소비 촉진운동에 동참하고자 매년 진행되어왔다. 올해 참여 학교인 제천중학교 및 제천동중학교 학부모회가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한국YWCA와 제천농협 본점, NH농협 제천시지부의 후원으로 진행했으며 1,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청주YWCA | 박보람 간사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 워크숍

5월 15일 34명의 이사, 위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4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운동을 주제로 현황과 실태 등을 발표하고, 청주Y 청소년 운동 방향 수립을 위한 조별토론을 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청주YWCA의 2015년 50주년 기념사업을 기대해본다.

충주YWCA | 김세희 간사

여성학아카데미 개강

6월 12일부터 여성학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학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된다. '여성학 아카데미'는 7주 동안 충주 시민들과 충주Y 부속시설 실무자들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을 통해 성평등주의 시각을 기본으로 하는 여성학의 이해와 양성평등의를 사회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산YWCA | 김화선 팀장

움직이는 탈핵학교



연합회 주관의 2014 움직이는 탈핵학교에 선정된 논산Y는 자원 지도자와 실무자, 회원 중심으로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6월 18일부터 주 1회 탈핵 교육을 진행했다.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실천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탈핵의 중요성과 대체에너지의 가능성을 알려 YWCA의 탈핵운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탈핵학교

를 통해 참가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YWCA 탈핵 운동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세종YWCA | 홍진영 팀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세종시지역협의회(세종YWCA) 캠페인 실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5월 21일과 6월 2일 이틀 동안 각각 세종YWCA,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2차례 실시하였다. 유권자 투표참여와 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으며, 후보자 검증 후 바른 일꾼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두레산악회 회원과 함께하는 탈핵 캠페인



5월 27일 두레산악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탈핵 캠페인을 가졌다. 중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스티커 부착,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건설 반대 서명 등을 하며 탈핵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알렸다. 두레산악회 회원과 함께하는 탈핵 캠페인은 매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협약 체결



5월 27일 전라북도과 전북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전주Y 회관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협약식을 갖고,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전주Y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전력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절전실천 동참을 위한 행정기관-도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목포YWCA | 박수현 부장

2014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5월 9일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라는 슬로건으로 60일간 진행될 회원증모운동은 이사, 실무자 중심으로 10개 조로 편성해 2014년 회원증모운동 계획 발표, 구호제창, 회원증모 개사곡 부르기 등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2014년 Y-틴 인준식

5월 17일 해피락 주식회사에서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Y-틴



회원, 청소년 지도자 등 65명이 참석했다. 김사옥(순천Y)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인준식에는 순천 지역 4개 Y-틴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인준식 후에는 Y-틴의 기획으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어 클럽간 친목을 도모했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탈핵 '불의날' 캠페인

5월 27일 10개 부속시설 직원 및 이사들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현수막을 내걸고 첫 번째 탈핵 캠페인을 가졌다. 시민 대상으로 탈핵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탈핵을 위한 한국 YWCA 결의문 낭독, 리플렛 나눔, 노후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 서명받기, 피켓 등으로 진행했다. 여수Y는 월 1회 화요일에 탈핵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YWCA | 장진우 간사

회원무료강좌



5월 13일 제주Y 3층 강당에서 회원무료강좌 '카네이션 볼펜과 상품권 봉투 만들기'를 진행했다. 김희열 리본공예강사의 강의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카네이션 볼펜과 상품권 봉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2014년 협동조합아카데미

5월 14일 본 회관에서 서귀포시민 26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아카데미 개강식을 진행했다. 본 과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12회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동부

대구YWCA | 김세형 차장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7일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탈핵 피켓을 들고, 탈핵을 향한 의지를 몸으로, 목소리로, 글로 표현했다. 불의날 캠페인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핵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탈핵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부산YWCA | 하경량 간사

부산시장 후보자·시민대표 공동 협약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리 원전의 핵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7일 부산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탈핵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쇄 및 재수명 연장 저지, 추가 핵발전소 건설 반대 및 고리 핵단지화 방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를 통한 실질적 방사능 방재대책의 수립이다. 이후 서면에서 진행된 불의날 캠페인을 통해 부산시장 후보자·시민대표



공동협약내용을 부산시민에게 알렸고, 많은 부산시민이 탈핵 캠페인에 참여했다.

울산YWCA | 김선양 팀장

Y-틴 및 대학Y 동아리 인준식

5월 24일 울산Y 2층 강당에서 Y-틴 암니움니와 대학Y 애솔 동아리 인준식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사무총장, 실무자들과 총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서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의 시간을 마련했다.

포항YWCA | 황혜민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소양교육



5월 20일 Y회의실에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 부착하여 감시단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동YWCA | 강주영 간사

안동성소병원·안동YWCA협약식

5월 21일 안동성소병원 회의실에서 안동성소병원장을 비롯한 성



소병원 임원들과 안동Y의 역대 회장들과 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안동성소병원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합병원으로서 평소 안동YWCA의 설립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안동Y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출산·육아프로그램 및 생명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제YWCA | 김의향 팀장

자원지도자 및 실무자 양성교육

5월22일부터 23일까지 거제 이송아저씨펜션에서 임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감사로 이천진 목사(공정교회)를 모시고 이사 11명, 실무자 7명이 참석하여 YWCA영성교재 '새벽종소리'로 YWCA의 정체성과 정의·평화·생명운동, YWCA운동가의 사명, 실천하는 YWCA운동을 배우며 YWCA 목적문과 같이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로서의 영성을 다졌다.

김해YWCA | 배정숙 실장

구인·구직여성 만남의 날

5월 28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구직여성 만남의 날을 실시했다. 지역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 현장 면접을 진행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에는 이코리아산업, 동김해병원, (주)빙그레 등의 10개의 업체와 구직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여성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캠페인

건강가정상담소에서는 5월 21일 사천시 사남면 일대에서 실무자, 자원봉사자, 마을지킴이단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여성폭력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알콜 중독, 폭력, 대화단절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상담지원 및 연계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원동습지 생태체험활동으로 환경교육 실천



5월 27일 '물사랑! 생명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원동습지를 탐방해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했다. 5월 7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실천운동으로,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원동습지의 생태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습지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번 생태체험활동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이 곧 식생활 교육이며 환경실천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창원YWCA | 박소라 간사

탈핵 '불의날' 캠페인

5월 13일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창원롯데마트 앞에서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 속에 존재하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주관: **YWCA** (사) 한국YWCA연합회

후원: **KEB** 외환은행나눔재단

DOSET

2014 YWCA 지구시민활동가 "도세트"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팀원들 개개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 팀원들의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3. 개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4. 활동하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5.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재미와 책임이 더해지도록
6.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곳에서 최고로 잘 활용되도록
7. 팀원들이 개개인의 생애에 큰 전환점이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8. 팀원들이 YWCA의 목적을 함께 이해하며,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9.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추시도록
10.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 살렘지역 주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3.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나라에 대한 큰 비전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4. 팀원들이 한국YWCA 대학 청년리더십에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5.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마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 일시: 2014. 7. 2(수)~8. 23(토)
• 장소: 인도 타밀라두주 살렘지역



• 후원계좌: 농협_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Design by 양유정